



## 생생리포트

---

### 1/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

- 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- II. 서울의 1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- III.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
최봉 cbong@si.re.kr

# 1/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

\*이 생생리포트는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11호를 인용한 것입니다(최봉, 2016, “1/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”,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, 211호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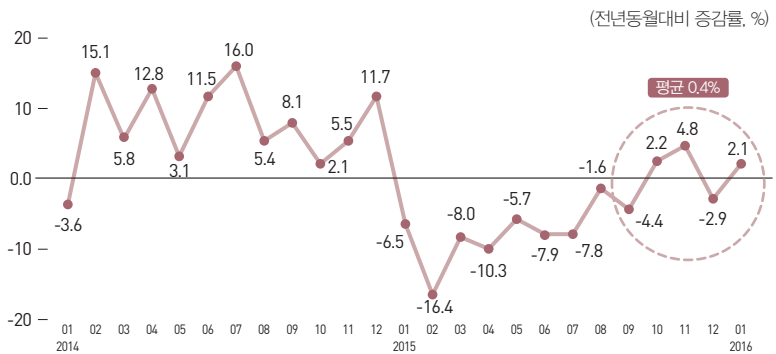
## 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
###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회복세이나 고용은 아직 정체

#### 2016년 1월 서울의「산업생산지수」는 전년 대비 성장

-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2015년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-2.9%로 마감하였으나, 2016년 1월 기준 2.1% 증가로 돌아서며 반등에 성공
  - 서울과 달리 전국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1%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여, 상대적으로 서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
  - 1월 들어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최근 5개월 평균은 전년 동월 대비 0.4%로 정체 상태
- 부문별로 자본재는 5.4%, 소비재는 3.0%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, 중간재는 5.4% 감소
  - 최근 5개월 기준으로 자본재는 4.8%의 감소율을 보였으나, 중간재는 8.5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대조적

① 최근 2개월 수치에는 잠정치(p)가 포함되어 있으며, 추후 수정될 수 있음.  
매년 1월분 통계 공표(2월말 또는 3월초) 시에는 연간보정으로 인해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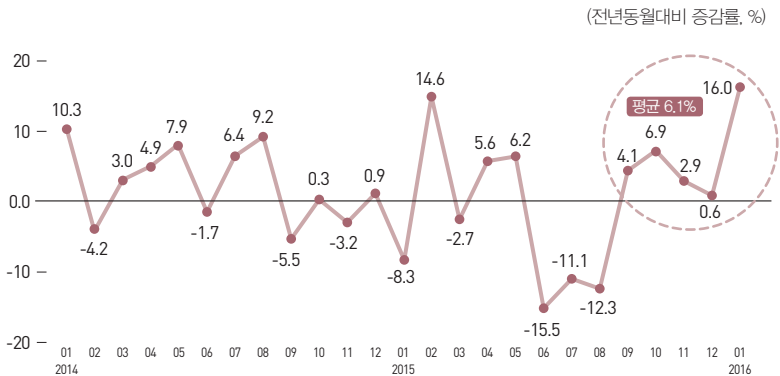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광업제조업동향조사<sup>①</sup>

(그림 1)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감률(제조업)

###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16.0% 성장

-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2016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6.0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5개월간 평균 6.1% 증가
  - 2015년 여름 메르스 사태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판매액은 가을 반등 후 연말까지 다소 하락하였으나, 2016년 초 다시 급증하는 모습
- 백화점 판매액은 최근 5개월간 평균 2.4% 증가, 대형마트 판매액은 평균 10.1%의 높은 증가
  - 백화점 판매액이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두 번의 큰 증가세에 힘입어 성장하였다면,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5년 9월 이후 꾸준히 높은 성장세 기록
  - 「대형소매점 판매액」은 2016년 가을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백화점 등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, 앞으로 서울시민의 이 같은 소비심리가 유지될 지가 관건



자료 통계청, 서비스업동향조사

〈그림 2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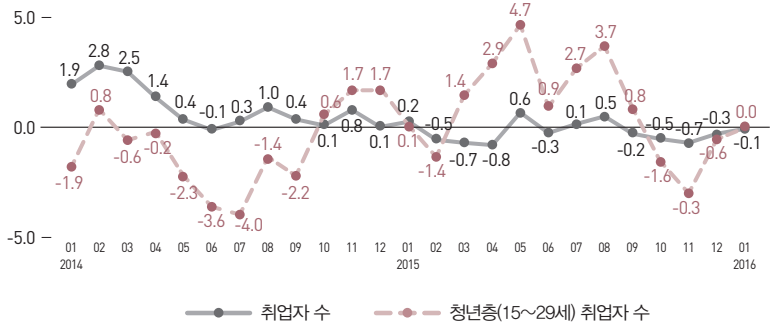
### 전체 「취업자 수」는 작년 가을 이후 유지 상태이나 청년층은 월별로 큰 차이

- 2016년 1월 서울의 「취업자 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0.1% 감소한 511만 명
  - 「취업자 수」의 증감률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나, 2015년 12월 -0.3%,

2016년 1월 -0.1%로 차츰 둔화

-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같은 88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월별로 심한 변동 추세
  -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평균 -0.9%였으며 2016년 1월 기준으로도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나, 2015년 5월 4.7%에서 2015년 11월 -3.0%까지 떨어져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것으로 조사
  - 특히 최근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

(전년동월대비 증감률, %)



자료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〈그림 3〉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

## II. 서울의 1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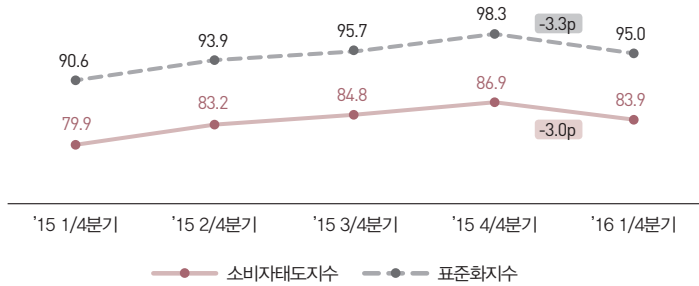
### 2016년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는 하락으로 출발

②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(5개 항목)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. 연도별로 시계열 조사되는 결과값이 성별, 가구수,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, 이러한 변수들을 표준화한 값을 구하는 것임.

### 서울의 1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4분기 만에 하락세

- 2016년 1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<sup>②</sup> 기준 95.0으로 전(前) 분기 대비 3.3p 하락
  - 2015년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였던 반면, 2016년 1/4분기는 하락으로 시작
- 소비지출이 높아지는 신년과 설이 지나 당분간 소비심리 개선은 어려울 전망
  - 지난 연말 정부의 소비 유도 정책 등으로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,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
  -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가 급상승하는 등 소비지출이 늘어났으나 이

는 연말과 신년 특수가 겹친 것으로, 실질적인 소비심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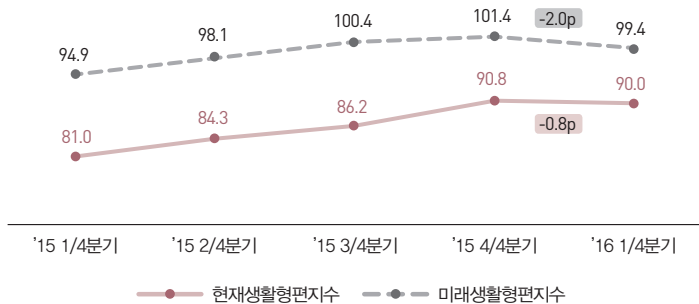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

〈그림 4〉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### 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 하락세

- 2016년 1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8p 감소한 90.0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 역시 99.4로 전 분기 대비 2.0p 감소
  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2014년 4분기(79.7)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에 제동
  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도 2014년 4분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로 최근 2분기 연속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었으나, 99.4로 전 분기보다 2.0p가 감소하며 다시 기준치를 하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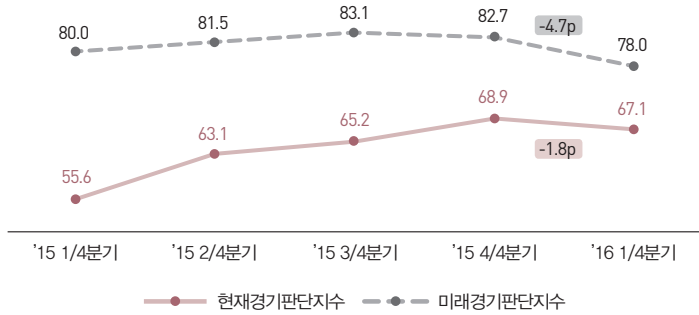
〈그림 5〉 서울의 생활형편지수

### 서울의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

- 2016년 1/4분기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8p 하락한 67.1을 기록
  -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2015년 1/4분기 55.6의 저점을 기록한 후 2015년 4/4분기 68.9까지 3분기 연속 상승하였으나, 이번 분기 67.1로 다

시 하락하는 등 기준치(100)에 크게 미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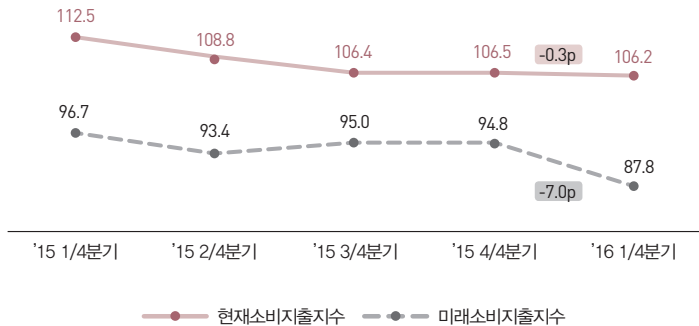
- 2016년 1/4분기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 역시 78.0으로 전 분기보다 4.7p 하락  
 -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며 70대를 기록하는 등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



〈그림 6〉 서울의 경기판단지수

### 서울의 현재 소비는 큰 변화가 없으나 미래 소비는 최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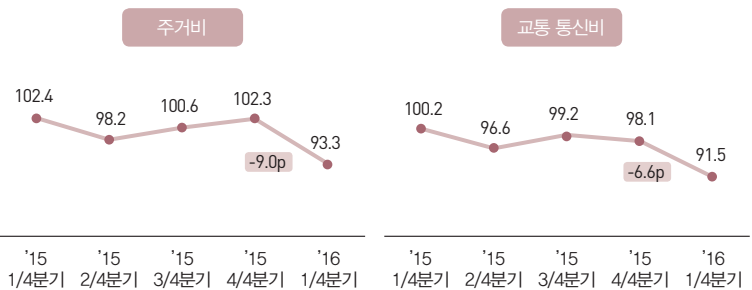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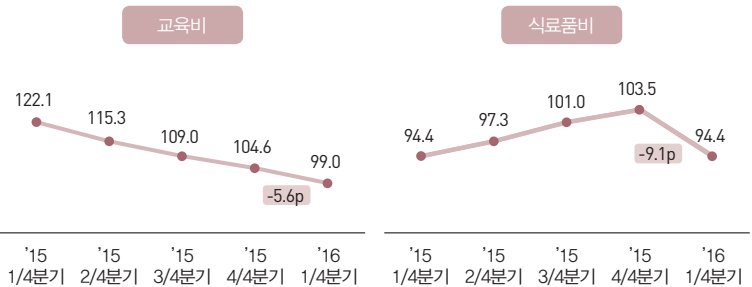
- 2016년 1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06.2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  
 -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1년 전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, 전 분기 대비 0.3p 하락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수준
- 그러나 2016년 1/4분기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87.8로 7.0p의 큰 폭으로 하락  
 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2014년 1/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였으나 그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여, 향후 소비에 대한 기대치는 낮을 것으로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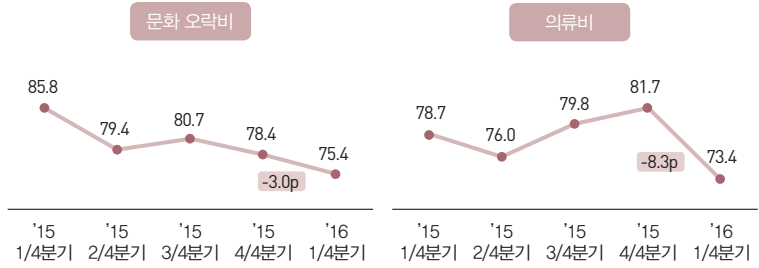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7〉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### 미래소비지출은 모든 품목에서 지난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, 기준치를 하회

- ‘교육비’는 전 분기 대비 5.6p 감소한 99.0을 기록하며 기준치(100)를 하회
  - 다른 품목이 상승하던 시기에도 하락 중이던 ‘교육비’는 4분기 연속 하락에도 불구하고,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‘식료품비’, ‘주거비’, ‘의류비’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
  - 2분기 연속 상승하며 지난 분기 기준치(100)를 상회하였던 ‘식료품비’와 ‘주거비’ 품목은 전 분기에 비해 각각 9.1p, 9.0p 하락하며 기준치를 하회
  - ‘의류비’ 역시 8.3p가 떨어지며 ‘문화오락비’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
- ‘교통/통신비’와 ‘문화오락비’도 91.5과 75.4로 각각 6.6p, 3.0p 하락
  - 6개 품목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, 상대적으로 ‘문화오락비’의 감소가 크지 않은 편
  - ‘문화오락비’는 ‘의류비’와 함께 소비지출지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품목으로 더 이상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그 외 의식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에서도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
- 지난 분기까지는 ‘교육비’, ‘식료품비’, ‘주거비’에서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으나, 2016년 1/4분기에서는 기준치를 상회한 품목이 부재
  - 전 품목에서 기준치를 밑돌아 향후 소비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것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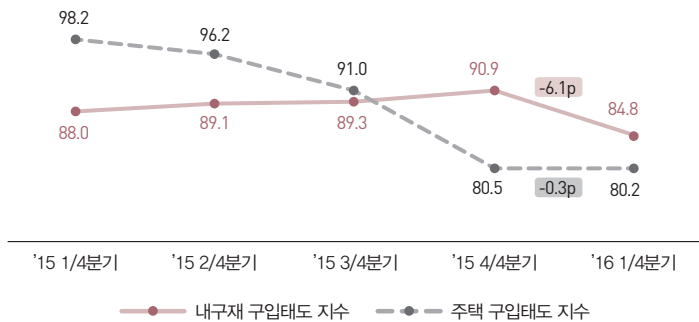




〈그림 8〉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

###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 의사 크게 저하

- 2016년 1/4분기 「내구재 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6.1p 하락한 84.8
  - 2015년 1/4분기 이후 회복세에 들어서 3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, 기준치(100)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소비심리 위축
- 「주택 구입태도지수」는 80.2로 전 분기보다 0.3p 소폭 하락
  - 2015년 1/4분기 이후로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, 2016년 1/4분기는 전 분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판단
  - 그러나 지수가 80.2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주택구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



〈그림 9〉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

### 순자산을 비롯해 물가예상, 고용상황전망 모두 상승

- 2016년 1/4분기 「순자산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9.1p 오른 101.5를 기록
  - 지난 4분기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해오다 큰 폭으로 상승
- 「물가예상지수」도 전 분기 대비 4.8p 오른 135.4로 비교적 크게 상승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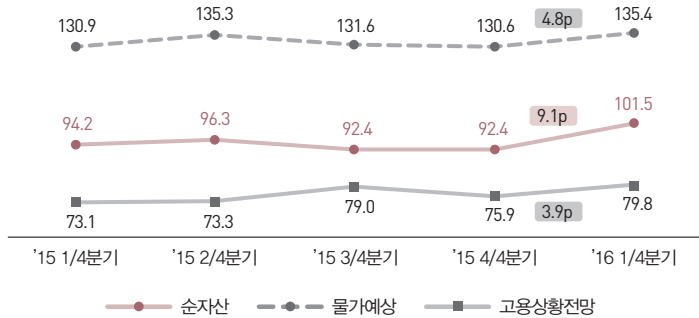


향후 체감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

- 최근 저점이었던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세이며, 환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체감 물가상승률이 심화될 전망

•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3.9p 상승한 79.8

- 2015년 1/4분기 이후 고용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전망은 가장 긍정적이나 여전히 80 이하로 낮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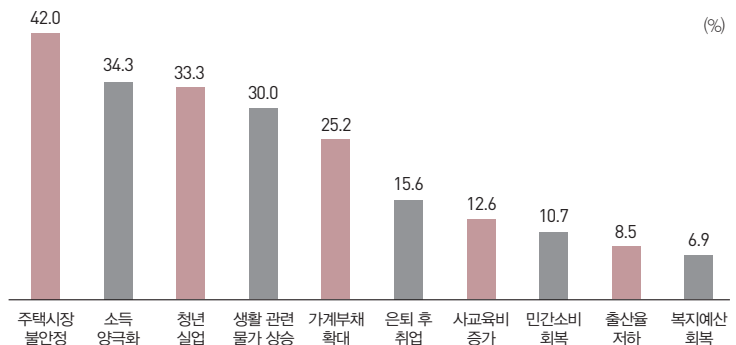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0〉 서울의 순자산지수, 물가예상지수, 고용상황전망지수

### Ⅲ.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

서울시민의 최대 관심 경제 이슈는 주택시장 불안정

20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 경제 이슈는 주택시장 불안정

-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경제 이슈로 서울시민들은 '주택시장 불안정'(42.0%)을 선정
  - '소득양극화'(34.3%), '청년실업'(33.3%) 문제도 30% 이상을 차지하였으며, '생활관련 물가 상승'(30.0%), '가계부채 확대'(25.2%)도 높은 편
  - '출산율 저하'(8.5%), '복지예산 회복'(6.9%)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



〈그림 11〉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